

“군비축소로 부녀복지비 5배 늘일 수 있다”

〈전쟁과 여성〉 강좌서 김성천 교수 주장

군비 총 세출의 32.4%인 반면 여성복지비 0.31%

우리나라 군사비를 경제수준이 비슷한 중상위 자본주의 국가군의 평균 방위비 지출비율인 7.4%로 축소시킨다면 현재부터 복지 예산의 약 5배에 해당하는 149억여원이 부녀복지를 위해 추가로 쓰여질 수 있다. 또 현행 한국 방위비 지출 수준을 절반정도만 감소시켜도 그 추가분은 현재 부녀복지비의 3배에 달하는 96억8천7백만원이나 된다.

이같은 주제는 7일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원장 김윤옥)이 ‘전쟁과 여성’을 주제로 마련한 제3회 평화강좌에서 원광대 사회복지학과 김성천 교수에 의해 밝혀졌다.

김 교수는 ‘군사비와 여성복지의 문제’라는 그의 연구에서 “그동안 한국은 경제능력에 비해 과다한 군비(89년 현재 총 세출의 32.4%)를 부담해왔고, 이같은 군비지출로 인해 사회복지부문이 결정적으로 제약당했었다”고 지적한 뒤, “한국에서 군축이 현실화되면 그 잉여분은 당연히 낙후돼왔던



김성천 교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확충에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인당 GNP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베네주엘라, 파나마, 아르헨티나 등과 비교해 보면 군사비의 경우 한국이 이들 국가보다 2배이상 지출하고 있는 반면 복지비는 비교 국가들이 한국보다 3.5배 정도 많이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부문에서 부녀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0.31%에 불과해 군축에 의한 잉여분을 추계해도 여성복지의



조옥라 교수

문제나 요구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김교수의 주장.

여성복지 부문에서의 이같은 결과는 군축에 의한 전체 사회복지 잉여분이 약 3조에서 5조에 이르러 획기적인 사회복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한편 이날 조옥라(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쟁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여성은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야 하는 정신적 피해와 아울러 강간, 죽음 등 직접적인 피해도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평화에 대한 회구도 남성보다 더 강하다는 것.

조 교수는 전쟁과 폭력이 소수의 남성지배집단에게만 유리한 경쟁과 이기주의, 자연 파괴 등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발생했다는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여성적 원리’를 활용해 평화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적 원리’란 기존의 여성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성성의 원리’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생명, 조화, 관계의 확대’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조 교수는 이같은 논리를 통해 소수지배집단을 제외한 대다수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평화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박미라 기자〉

여성신문 만평 반박이

